

우석대 최혜영 학생, 청소년자원봉사대회서 장관상

우석대학교 최혜영(간호학과 4년) 학생은 지난 1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RCY 활동을 중심으로 라오스 봉사과 환경정화, 유기견 봉사 등 국내외에서 629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최혜영 학생은 청소년 멘토링과 CPR 및 위생교육, 폐현수막 재활용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혜영

최혜영 학생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봉사에 대한 책임감을 한층 더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은 간호대학장은 "최혜영 학생이 보여준 헌신과 열정은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의 모범이자 자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인류에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남원농기센터,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 2기 수료식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신규농업인들에게 기초 영농 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10월 31일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주 소장이 "이번 교육 수료 후에도 수료생들이 농업 전문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무주군, 순가락 난타 동호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 순가락 난타 동호회 '현대관 어우동' 팀 회원들이 3일(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정명임 회장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장학금으로 전달하게 됐다"라며 "장자 무주군을 이끌고 나갈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자라는 데 꼭 필요한 버팀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순가락 난타 동호회 현대관 어우동팀원 11명은 모두 무주읍 주민들로, 2024년부터 '행복 반차와 함께하는 재능기부' 공연으로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신천지예수교회, 대규모 수료생 6만명 배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달한 신앙인' 6만 명을 배출한다. 2일 신천지 청주교회에서 개최되는 '제116기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수료식'에서 총 5만 9102명이 수료했다.

이번 기수는 팬데믹 이후 전면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등 엄격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수료생이 6만 명에 달한다. 진리에 대한 신앙인들의 갈급함이 교단과 교파를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목회자 수료생의 증가다. 이번 116기 수료생 가운데 목회자는 2248명이며, 최근 4년간 누적 목회자 수료생은 1만 3500명을 돌파했다.

“상호교류로 성장·화합해 아름다운 추억을”

제38회 전북스피치인 한마음축제 성료

제38회 전북스피치인 한마음축제가 지난 1일 임실 사선대 광장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각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가 주최하고, 한국스피치어용변협회 전북지부가 주관했다. 국민종합주택관리, 성운투르크, 백송화관, 황금농장, 살림농장 등이 후원했다.

행사에서는 김양욱 축제본부장, 김기수 지도위원장, 서보회 제2위원장, 황금석 자문위원장, 윤세춘 추진위원장, 김충현 준비위원장, 강정원 홍보위원장, 김연경 진행위원장 등 내빈들과 스피치인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무대, 장기지랑, 도내평생교육원 원우들의 상호교류 등으로 구성됐다.

장기지랑 입상자로, 대상에 신미자(원광대)씨가 차지했다. 최경희(우석대)씨는 최우수상을, 김영숙(전주교대)씨는 우수상을 수상받았으며, 박형만(우석대대리대)씨는 우등상을 수상받았다. 오건수(전북대)씨와 김경호(군산대)씨는 장려상을 받았다.

고리걸기에서는 김충현(전주교대)씨가 1위, 이승애(전주대)씨는 2위, 박성준(우석대)씨는 3위를 차지했다.

이번 화합상 대상에 박형만(우석대)씨가 차지했다. 황금석(전주대)씨는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공로표창장 수여식에서 오원석씨와 서보환씨가 공로



패를 수여받았고, 박성준·신미자·오동선·박다감·오이순·이승애·양계순·김기너씨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축하공연에서는 고고장구(양계순 외 5인), 색소폰(김충현, 대금(이호기), 기타(오동선), 플루트(정황상), 시낭송(김기너·오이순), 가요(한송이·진문택·정도현·도도희·이수정·정미영·김윤섭·송희숙·김연경·정준임·정영숙·황금석·이동제) 등으로 구성됐다.

김양욱 축제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피치인 모두가 상호교류로 더욱 성장하고 화합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탄소중립 완산마을, 완산동서 ‘지구별 페스타’ 성료

전주시 완산동 일대에서 마을과 환경이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거점 공간인 '탄소중립 완산마을'(대표 모아름드리)이 지난 1일 완산동 일원에서 '지구별 페스타'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공간 속에서 환경 의제를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과 마을 연계형 생활 축제'로 기획됐다.

특히 완산동 골목 상점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골목을 걸으며 환경친화적 상점을 발굴하는 스탬프 투어를 진행했으며, 해남자연순환연구소의 활동기를 초청해 마을 기반 자연순환



시혜와 커뮤니티 조직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1일 우산 수리소 △제로웨이스트 리플 스테이션 △씨드방 만들기 △태양열 오븐 활용 등 손으로 배우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이번 페스타에 참여한 한 주민은 "평소엔 환경 활동이 멀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마을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모아름드리 탄소중립 완산마을을 대표하는 "이번 페스타를 통해 상점, 경로당, 약국 등 생활거점이 환경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정읍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성료

기본이 튼튼한 복지주권'을 주제로 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날 31일 정읍시체육관에서 열렸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운용)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민과 복지인들이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사회복지종사자, 봉사자, 후원자 등 약 400여 명이 모여 사회복지의 날 취지를 공유하고 복지의 공공성과 관리성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문화복지바람화, 기념식, 야외 리셉션 등으로 구성돼 복지 현장의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플리마켓, 지역사회 복지기관 홍보부스, 다양한 문화공연 등이 운영돼 시민 참여의 폭을 한층 넓혔다.



김제자본센터, 베트남 동나이성서 해외볼런투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운권)가 10월 30일부터 이날 4일까지 4박 6일간 베트남 동나이성 일대에서 '2025 김제시 해외볼런투어'를 진행했다고 있다.

이번 해외볼런투어에는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26명이 참여했으며, 현지에서 장애인 시설을 찾아 식사보조,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활동을 진행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왔다. 이어 3일 차에는 고아원을 찾아 벽화 도색활동과 함께 달고나 만들기, 민화 예코백 꾸미기, 열쇠고리 제작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과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두 기관에는 생필품과 식료품 등 후원물품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기념식에서는 그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들과 봉사자들의 노고에 공식적인 감사를 전하는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우협회 남원지부, 남원시에 한우 기부

남원시는 (사)전국한우협회 남원지부(지부장 신춘호)에서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기해 남원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우 불고기값 80kg(한가액 304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한우는 남원 지역 한우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뜻이 담겨 있으며, 전달식은 11월 3일 남원시장 부시장실에서 열렸다.

기부된 한우는 500g씩 개별 포장되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총 180가구의 저소득층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춘호 지부장은 "앞으로도 한우농가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정읍시 공동주택 정책 연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 공동주택 정책 연구 포럼'(대표 서항경)이 지난날 28일 공동주택의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서항경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상철 오승현 의원이 참여한 연구포럼은 지난 4월부터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행정·재정 지원 현황 분석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연구 △정책 개선 방향 도출 등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읍시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다른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례와 전문가 자문단 제도를 공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체계 강화, 재정지원 효율화,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항경 대표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정읍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아직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체계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시 금암동 주민화합한마당 축제 성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은 지난 1일 금암노인복지관(삼송길 12)에서 관내 여러 자생단체가 모여 구성된 '금암동 주민화합한마당 축제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2025 금암동 주민화합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10일 통합 이후 전주의 중심지로 새롭게 출발한 금암동의 화합을 기념하고, 주민 간의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금암동, 함께라서 행복한 축제"라는 이름 아래 300여 명의 지역민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축제는 풍물과 라인댄스 공연으로 시작해 주요 내빈의 축사, 기념 퍼포먼스, 주민장기자랑,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순서로 이어졌다.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한 장기지랑과 경품추첨, 건강체험·커피음료 시음·한궁체험 등 여러 체험부스가 큰 호응을 얻었다.

이은정 금암동장은 "이번 행사는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함께한 자리로, 금암동의 공동체 정신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계기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금암동은 통합 이후 약 1만 7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자생단체 350여 명이 활발히 활동 중으로,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중심의 마을 발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권희성기자



전은노동조합, 전주시니어클럽에 300만원 후원

전북은행노동조합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전주시니어클럽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전주시니어클럽 김효춘 관장을 비롯해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전북은행 고현상 경원동지점장이 참석해 따뜻한 지역 상생의 뜻을 함께했다.

이번 후원금은 전북은행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지역사랑성금'을 통해 마련됐다. 노조는 이 기금을 기반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을 꾸준히 지원하며, 연중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전주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정원호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어르신들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말했다. /오상근 기자